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미가 · 나훔 · 스바냐 · 하박국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충현의 만나

2002

가정예배 · 미가 · 나훔 · 스바나 · 하박국 · 학개
· 스기라 · 말라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흔 적 (brand-marks)



부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슴속에는 저마다 이번 여름을 지낸 흔적이 남아있겠지요.
사실, 어디 이번 여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애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르겠지만,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장식되거나
수치와 진통으로 점철된 흔적이겠지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
바울에게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흔적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의 몸에 새겨진 흔적은 그분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오직,
주와 함께 걷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기로 달아올랐던 이번 여름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다녔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못 영혼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졌겠지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커져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각자의 몸에 새기는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2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소선지서 서론

1. 나훔

나훔서의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메시지가 앗수르의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가 넘어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3:1-5). 따라서 이 책은 B.C.615년 전의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해에 나보불라 살과 메대에 의해 니느웨가 대 전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나훔은 먼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와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을 개설한다(1:2-7). 그리고 나서 엄청난 수의 병기와 보병들에 의해 완전하게 짓밟히는 니느웨의 참상을 극적으로 묘사한다(2:4-13). 마지막으로 그는 앗수르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을 것임을 말한다. 이는 앗수르가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을 피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2. 스바나

스바나는 그가 유다의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에 살았음(1:1)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B.C. 622년의 대 부흥운동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측컨대 그는 그 사건 전에 살았을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요엘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날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의 경우 이 날은 유다의 심판만을 가리킨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1:15-16). 이 날은 블레셋인들, 모압인들, 암몬인들, 에디오피아인들, 그리고 앗수르인들에게도 미칠 것인데 이는 모든 나라들이 온 땅의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지도력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3:1-7).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흠어진 그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3:17) 그들이 받을 축복으로 인해 온 세계가 주목하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3:20).

3. 하박국

하박국은 그의 책의 저작연대에 대해 아무런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바벨론(갈대아)의 발흥을 자주 언급하면서 그것을 급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나보불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기 직전(1:6)인 주전 약 630년쯤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앗수르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벌하셨듯이 이제는 바벨론을 일으켜 앗수르와 유다를 향한 그의 뜻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행하여 그들의 그 주재념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피로 물들이고 술취하고 우상숭배를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을 잠식하여 망각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2:12).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얻게 될 구원에 대한 찬송으로 귀결될 것이다. 책의 말미에 이 노래가 그의 영장에게 헌정되었다는 뜻의 흥미로운 추서가 붙여있는데(3:19). 이것은 하박국이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음악가이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학개

성전이 시작되어진 때부터(B.C. 536년쯤) 학개의 사역이 시작된 때(520년)까지는 16년간의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동안 백성들의 열정은 식어졌고 마무리하지 못한 기초는 미완성의 임무를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동기이다.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어서 즉각적으로 그 사역을 다시 시작했으며 5년 내에 그 일을 완성했다(516년경).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석하여 이 빈약한 성전과 비교하면서 울기도 했으나(2:3) 학개는 이 성전이 옛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2:9).

5.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 스가랴 선지자 역시 성전을 재 건축할 명을 지었으나 주로 묵시적 용어로 표현되어진 그의 환상은 학개의 그것보다 훨씬 광범한 것이었다. 그는 육신적 예루살렘 뿐 아니라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 볼 수 있는 영적인 도성의 축광과 재건축을 보았다(2:11-12). 이 구원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3:8). 그 도성 자체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쁜 백성들로 가득할 것이다(8:8). 열 사람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달라고 간청할 때가 올 것이다(8:23). 그 도성의 왕은 겸손과 정의와 구원을 가지고 그 성에 도래하여 하나님의 적들을 멸망시킬 것이다(9:9).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와 속이는 것을 그들의 직업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13:2). 그러나 미래의 영광은 환란을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에 열방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만 한다(14:1-3). 그러나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고 그것을 둘로 나누며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든 열방들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그 구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14:4-11). 악한 자가 무너질 것이며 모든 것들은 여호와 앞에 거룩해질 것이다(14:20-21).

6.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는 주로 그가 사방에서 보았던 율법과 의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졌다. 비록 유대인들이 포로 이후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여호와의 기대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말라기는 여호와께 열등한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것(1:8), 제사장의 죄악들을 지적하였다. 말라기는 명백한 어조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있으며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정화하고 심판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고 진술했다(3:1-3). 그의 도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의 진노로 인해 소멸될 것이나 순종하여 그 분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치유와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도래에 대한 징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심판과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이사야의 선포일 것이다.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사람에게 회개해야 할 죄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세상의 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인간 중심의 회개와 제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제사보다 실천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천천(千千)의 수양', '만만(萬萬)의 강수(江水) 같은 기름' 을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6-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8절) 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실천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실제적인 삶은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처럼 경건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적인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소망하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1, 2절). 뿐만 아니라 '관리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쫓겨 울타리 보다 더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습니다(3-4절). 심지어 '이웃, 친구, 네 품에 누운 여인과 가족까지도 믿지 못할' 정도로 불신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5-6절).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이나 이후에도 전세계에 미칠 것이며(11-13절),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14-17절),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18-20절).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나가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를 촉구한 사실에 반해 나훔은 니느웨와 앓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책임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과 죄악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범죄하였을 때는 죄악에 대한 대가를 주고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앓수르에 대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며 기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으며, 나훔서를 통해서도 공의에 입각하여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이라고 증거합니다(2-8절). 이러한 앓수르의 멸망을 유다에 전할 '아름다운 소식' (15절)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은 역사적으로는 앓수르의 멸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영적인 의미의 앓수르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니느웨(앗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에 의존하여 유지되던 니느웨의 영화는 잠시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니느웨성이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사실처럼 생생하게 예언되고(1-6절) 절망하는 거민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7-10절)

앗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나훔의 예언은 메대의 왕 카카레스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연합한 공격(B.C. 612)에서 성취됩니다.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이 때의 전투는 니느웨 성 외곽에서 석달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앗수르가 처음에 승리를 했는데 앗수르가 승리의 향연을 벌이며 방심하는 동안 한밤중에 바벨론 군대가 습격하여 미처 방어준비를 못한 앗수르의 군사들을 살해하였습니다(3-5절). 이제 니느웨 성만 남고 외곽은 모두 점령당한 상태에서 바벨론 군이 홍수 때를 이용하여 수공(水攻)을 감행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느니웨는 함락되었습니다(6절). 전투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금은 보화와 전리품을 약탈하였습니다(8-10절). 결국 앗수르는 B.C.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부와 인구를 소유한 앗수르가 몰락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선지자의 예언은 실제상황을 보듯이 정확하였습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힘들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완전무결한 일을 한다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니느웨의 죄악이 철저한 멸망을 자초하였다는 사실이 3장에서 기술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필연성(1-7절),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8-19절).

니느웨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무역로였고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물질적인 번영이 다가오는 환난을 막지는 못한다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는 망했고 성터의 흔적만 폐허로 남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같았습니다. 티그리스강을 한쪽 방어면으로 하여 둘레가 13Km가 되는 성을 쌓고 성벽은 다시 물길로 둘러졌고, 성벽 위로는 병기가 세대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어나 시설도, 군사나 행정조직도, 물질적인 부유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 낼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음행과 마술이 멸망을 자초했다고 합니다(4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잠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 나의 생각이 니느웨처럼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내가 소유한 물질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

물질이나 지식, 힘이나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일을 위해 나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전 세계에 걸쳐 여호와와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장에서는 심판을 선고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회개를 권유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 있으며 그들이 얻게 될 영광을 또한 약속합니다.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임박성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생태계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2-3절). 이러한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합니다(4-6절). 부정부패를 일삼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정치가들, 동료들을 괴롭힌 사람들, 부정직한 상인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7-13절).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곧 종말에 임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축복과 저주 중 어느 편에서 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에는 심판이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영적인 눈을 열고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분명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고 시작하는 스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위의 열방들을 심판하실것을 경고하고 있다. 본 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3절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분노의 잔을 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4절-7절은 블레셋에 징계가 임할 것을 8절-15절은 모압에 잔노의 잔이 임할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전반부 1절-3절에서는 기슭된 바와 같이 “여호와 앞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 지어다”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스바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말씀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분명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숨어있다. 3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기록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교만한 백성들 속에 수치를 모르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케 말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잔노의 잔을 면할 수 있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에 동참할 수 있다.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 나 올 수 있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기도 제목 / ①우리의 영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바냐 3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11절이다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범죄 함으로 징계를 계획하시고 진노의 잔을 쏟으신다.

12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교만한 자들과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 이후 남은 자들 곧,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겸손한 백성들을 환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로 더불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켜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면밀히 숙고 해 보아야 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기도 제목 / ① 교만해 지려는 유혹에서 항상 승리하여,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박국은 자기 신앙을 시험하는 문제와 씨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적인 선지자였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린다. 이 책은 두 부분, 즉 하박국의 질문(1,2장)과 하박국의 찬양(3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박국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는 1:1-11에 언급된다. 1:1-4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유다의 사악함을 언제까지 별하지 않고 내버려두실 것인지를 묻는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정의는 짓밟혔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답이 1:5-11에 주어진다. 즉 하나님은 유다가 지은 죄를 징벌하기 위해 잔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신속하고, 광포하며, 완전하게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즉 동쪽에서 불어오는 광풍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응답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두 번째 대화로 이어진다(1:12-17). 선지자는 전보다 더 당혹해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훨씬 더 사악한 나라를 시켜 유다를 징벌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다(1:12-17).

하박국의 질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성급하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심스러우면서도 겸손하게 질문을 던지며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겸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또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인내로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3)

기도 제목 / 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도하심을 겸손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장은 바벨론의 탐욕, 착취와 강탈, 폭력, 부도덕, 우상숭배등에 대한 재앙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알고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며 똑같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을 마무리 지으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고 명확한 글씨로 도판에 새겨 거리에 붙여 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2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3절)고 하시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환란과 징계의 날이 이를 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다. 그 때에 “내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14절)라고 하신다.

범죄한 유다의 징계가 더디어 지는 것은, 징계의 수단으로 쓰임 받을 바벨론의 죄가 더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20절)라고 선포하신다. 우리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

기도 제목 / 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안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권능과 계획을 찬양한다. 그는 장차 유다가 장차 당할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비록 그 일이 두려우나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을 가진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환란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조속히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한다(2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동안 번번이 역사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한다(3-15절). 그는 교회의 현 역경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망할 것이지만 결국은 평안하고 영화롭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한다(16-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본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곤경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곤경들이 우리의 구원의 장애물이 아니라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안목을 이 땅에 묶어둘 때 여러 가지 곤경들이 슬픔이 되고, 좌절과 낙망을 가져오지만, 영원한 곳에 둘 때, 오히려 그러한 곤경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 때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기도 제목 / ① 이 땅의 처해진 곤경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학개의 기본 주제는 명확하다. 즉 남은 자들은 수고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성전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요청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낙담하여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적 질병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하였다.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은 주의 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는 곧 중단되고 백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일을 잊기 위한 구실을 찾았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1:2)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은 전혀 분개삼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복을 거두시고 그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겪게 하신다.(1:6)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탐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남은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통치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23일 후에는 모두가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1:15).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참 믿음의 자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하는 자이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학개서 2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가 3가지 설교를 한다. 첫째로, 성전건축을 시작한 뒤 몇 주일이 지나자 백성들의 열심은 낙망으로 변하고 만다. 장로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성전이 초라한 것을 한탄한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난 날 언약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장래를 위해 세우신 확고한 계획을 선포한다.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외모로는 그렇지 못하나 영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준다(1-9). 둘째로, 제사장들을 향한 학개의 메시지는 부정의 의미를 보여주며, 이 부정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다. 여호와와 성결과 순종을 요구하시므로, 죄의 오염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한 죄로 만사가 제대로 안 되었지만, 이제 그 일에 열심이니 하나님이 만사를 축복해 주고 성공케 해 주리라고 보증한다(10-19).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권능으로 이 땅의 열방을 멸하시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건과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스룹바벨은 하늘의 총아가 되고, 모든 대적을 쳐부수고 자기의 나라를 지상에 세울 메시아 만왕의 왕의 한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해 준다(20-23).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신 말씀처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외모는 아름답지 못하나, 영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능가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외적인면 즉, 외모, 부요함, 경험, 지식,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내적으로 부요함 즉,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기억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가랴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이께서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만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며 긍휼하심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부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백성들이 그들 열조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2, 4, 6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3, 4절)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총의 길 뿐입니다(3절).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였음을 밝히십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의(7-17절)와 크신 하나님의 능력(18-21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70년 동안 포로생활을(12절)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회복과(17절) 모든 뿔들을 대적하시어 승리하시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21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서 있을 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 앞에 몸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며 늘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겸손케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참 평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적량줄을 직접 잡으시고 회복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불 성곽을 지어 보호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신다는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과 참 안위임을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본 적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는(1절)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재건하셔서(2절) 장차 허다한 사람과 육축이 거하는 성곽 없는 촌락(4절)로 만드시며 마치 불 성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5절) 곳으로 지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헤가 더이상 없고 번영과 평화만 있는 불 성곽이 친히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의 불순종을 흠으심으로 다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6절). 이제 그 백성을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실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8절).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십니다(8절). 사탄에 의해 찢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10절).

오늘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는 나뭇대로의 성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불 성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시련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악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를 찬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당신은 진정 귀한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주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러 오셨습니다. 부정하다고 고소하는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시며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같은 여호수아 즉 예루살렘은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2절) 하지만 여호와 앞에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4절) 명하시며 모든 죄과를 제하여 버렸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하십니다(4절). 이것은 정한 관을 씌우시며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셨음을 나타냅니다(5절). 이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요구(6-7)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7절).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은 예표일 뿐입니다(8절). 그러나 '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한 참소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 값으로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한 관을 씌우시며 의롭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보이는 말썸조차도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의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스가랴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통해 그 당시 유다 총독으로서 성전 개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의 일이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6절) 오직 여호와와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스룹바벨과 같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어가심을 보이십니다(7-9절). 그러나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0절). 이런 자들에게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 공의와 심판의 기준이 들려 있음을 보이십니다(10절).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금 기름으로 인해서 금 등대 안에 채워져 빛을 발하는 환상은(12절) 유다 백성들의 은혜의 통로였던 기름부음 받은 두 종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의 기름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안에 하시는 일들이 기쁨 가운데서 행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주님과 교제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성령과 은혜의 기름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진노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지배 속에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죄악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한 온갖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3절). 이 저주의 말씀에 예외지역을 없었습니다(3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것입니다(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악' (8절)이라는 것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영적 음행을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7-9절). 이 '악' 의 세력들을 마지막에 '시날 땅' (11절). 영원한 불 뜻으로 보내어 완전히 제거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왕은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들은 죄가 기회를 들어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이 언제나 흐르고 있는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시면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자가 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늘 말씀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가라가 본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 의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려 주십니다.

네 병거를 이끄는 네 말들이 두 개의 돛 산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 (5절)을 의미하고 '바람'은 '영'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8절). 북방은 죄악의 본거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3:19)라고 했습니다. 이제 금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십니다.(11절) 그 이름을 '순'이라 칭하여 주시고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을 알리십니다(12-13절).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택하신 자들을 대속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다스리실 것을 보이십니다(15절).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금식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과 이에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베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5월 한달 동안 금식과 애통을 하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저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고 도로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해서 금식과 애통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보시기에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로인한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자기 민족의 신세를 한탄하고 만족을 구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외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습관적인 경건생활입니다. 형식적인 금식과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가 있으며 그 회개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와 삶으로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앞에서 참된 경건생활이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 되고, 거리에는 어른들이 앉게 되고, 성읍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하여 장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자신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백성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계획하지 말고, 거짓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16-17).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임하시고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것 곧 나귀새끼니라”(9절).

이 말씀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새끼로다.” 세상의 임금은 좋은것, 높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는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눅 19:28-40)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마 11:29).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며 삽시다. 겸손하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또 피곤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심판을 받아 흩어졌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하는 은총을 주시겠다는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3절에서 끝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들과 지밋목자들을 심판하실것을 경고하십니다(1-3절). 패역한 지도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유다에 봄비와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봄비가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때를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흩어졌던 유다족속, 요셉족속등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6절). 이 백성들을 과거에 버린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6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 된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눈감아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최은아 단기평신도선교사 (스리랑카)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목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이 참 목자를 싫어하며 거절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본문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4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7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는” “내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가련한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양들이 선한 목자를 싫어합니다. 결국 선한 목자를 배반하고 은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성전고에 던졌다가 토기장이의 발을 사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롯유다가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한목자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말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되신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 썸)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찢림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죄를 정결케 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10절상).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단순히 유다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영적 이스라엘 사람 곧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수난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찢은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10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를” 대신에 “나를” 이라고 바꾸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 죄인들 각자가 통곡하고 애통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합니다(12:10).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자이며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7절)으로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십니다(1절). 그리고 죄를 씻음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근원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2절). 그래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3~7절).

그런데 이러한 회개를 통한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9절). 그러나 이 불시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드리우리라'는 말씀으로 연단 받는 백성들을 도우시며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7절). 비록 불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9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 사건 이후 흩어진 양떼였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들 위에 '손을 드리우셨고', 성도들은 박해의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불시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벧전 4:12~14). 거듭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를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3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국에 의해 환란을 당합니다(1,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열국을 치시며(3절)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4절).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이제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뻗어가고 열국도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16~21절).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환란과 고난을 지켜 보시는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성도들이 도망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감람산이 하나님의 임재로 동서로 갈라져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아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어 갑니다(5절). 이 구원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동해로 서해로, 8절) 흘러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9절). 이 예언대로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땅 끝으로 흩어져 예루살렘에 부어주신 성령의 생수를 온 땅 백성들에게 전하였었습니다(행 8:1~4).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인 '어둠'이 오히려 성도들을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7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잃어 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딤후 3:17). 여러분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빛이 되는 삶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나타내십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내가 받는 고난이 나를 죽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소서. ② 농여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후 이 초라한 성전에 장차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 기대가 수 십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번영이 돌아오기는 커녕, 오히려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고(1:2).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를 품게 되며 형식주의적 신앙과 비도덕적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말라기는 여섯 편의 설교를 통하여 회개를 외치고 경건한 자들이 얻게 될 메시아 왕국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못 참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없이 택하셨고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2~5절). 오히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육신적 기대(식민지 해방)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예배가 형식화 되어 버립니다(8절).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조건을 걸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단 3:18)'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일부러 더디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를 육신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더디 옴에 감사하십시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사장들의 범죄를 책망하는 내용(1:6~14)이 그들을 향한 저주의 선포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2:1~9). 10~16절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네 가지 설교(2:10~4:3)의 첫 설교로 이스라엘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혼란상을 지적합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2:10~16)을 전하며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궤사를 행하였다(배반하다)'는 말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10, 11, 14, 15, 16절). 첫째,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한 아버지(10절)'가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11절). 아무리 하나님의 다른 율법들을 따르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통혼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12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궤사를 행했습니다'. 이방인의 딸을 첩으로 얻고 난 후 본처를 배반하고 버립니다. 심지어는 폭력으로 아내를 학대합니다(15~16절).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1:1의 관계로 만드신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건전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15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은 가정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 위에서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자녀를 키워냅니다.

부부의 믿음과 사랑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저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17~4:3까지 등장하는 세 가지의 설교중 첫째 설교(2:17~ 3:6)와 셋째 설교(3:13~4:3)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받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것 중에 좋은 것은 자신들이 취하고 흠 있는 것을 제사에 내 놓았으며(1:6~14)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었습니다(2:1~9). 이로 인해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드러지는 십일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3:5; 4:1).

이 세 편의 설교 중앙에 온전한 십일조의 설교가 놓인 것인 히브리 문학구조상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그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제사장)을 보지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행해야 할 본분(십일조)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롬 12:19~20).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며(16절), 하나님앞에 연단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3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여호와와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16절).

다른 사람들의 행악으로 인해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전통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전통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전통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전통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전통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

• 찬송 / 325장(주 예수 대문밖에) • 본문 / 시 9:10~14

못갓춘 마디의 악곡이므로 이와같이
악박 강박을 지켜 찬송합니다.

모듬으로 ♩ = 88



1. 주 예수 대문 밖에 기 다 러 섰 으 나
2. 문 두 드 리 는 손 은 못 박 힌 손 이 요
3. 주 예수 간 곡 하 게 권 하 는 말 씀 이

숨쉬는 것 때문에 숨쉬기 직전의 음표를
버리듯 노래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단 단 히 장 가 두 니 못 들 어 오 시 네
또 가 시 면 류 관 니 그 이 마 돌 렸 네
네 죄 로 죽 은 나 를 너 박 대 할 스 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순히 찬송합니다.

이부분에서는 조금 느리게 하여
가사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찬송합니다. (절정)

크고 간절히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나 주 를 밀 노 라 고 그 이 를 부 르 나
이 처 험 기 다 리 심 참 사 랑 이 로 다
나 죄 를 회 개 하 고 곧 문 을 연 니 다

다시 차분한 느낌으로 경건하게 마무리합니다.



문 밖 에 세 워 두 니 참 나 의 수 치 라
문 굴 게 달 아 두 니 한 없 는 내 죄 라
드 셔 서 죄 정 하 사 떠 나 지 마 소 서 아 멘

‘주 예수 대문밖에’ (325장)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굳게 닫힌 문에는 지식, 윤리, 재산, 체면, 교만 등의 많은 빗장들이 꽂혀 있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빗장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작시자는 “오 예수여, 굳게 닫힌 문 밖에 서 계시는군요, 겸손한 인내로 문에 들어오실 때를 기다리시는군요. 주의 성호와 징표를 지닌 크리스찬 형제들아, 참으로 우리의 수치로다. 문 밖에 계속 서 계시게 하다니 매우 큰 수치로다”라고 했습니다(1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니, 주님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셨기에 그토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실까요? 작시자는 “오 예수여, 당신께서 문두드리시는군요, 손엔 못자국난 상처가 있고 가시는 이마를 둘렀으며 눈물이 얼굴을 얼룩지게 하였군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토록 인내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네, 문을 그토록 단단히 빗장질한 죄 말할 수 없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2절).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내 자녀들아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었건만 어찌 날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애원하시고 그 애원의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모셔들여 다시는 떠나지 말아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간청하고 계시는군요, ‘내 자녀들아 난 널 위해 죽었건만 날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오 주여, 수치와 슬픔이 가득하여 이제 문을 엽니다. 사랑의 구주여 들어오소서,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마소서 아멘.”(3절)

들어가면서(서론)

진실한 한 신자가 이 노래를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10절). 이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1절).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각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심이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12절). 이 아름다운 구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과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슬픔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상기 시킵니다. 진실로, 오늘의 본문은 경이로움이 가득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죽음과 천국이라는 두 가지의 문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다른 문은 없다.
- ② 모든 인간은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직 선택할 수만 있을 뿐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시편 9장10절~14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0절 - 아는 자, 찾는 자

② 11절 - 찬송, 선포

③ 12절 - 기억하심

④ 13절 - 사망의 문

⑤ 14절 - 시온의 문

2. 다음 주일 설교(‘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에 대한 단원을 읽고, 복음의 메시지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②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에 대한 단원을 읽고, 모든 이들이 지나가야 할 죽음의 특성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③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또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④ '예수로 말미암은 시온의 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죽음의 문과 시온의 문의 차이를 말해 보십시오.

⑤ '시온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⑥ '두 가지 문의 주인'에 대한 단원을 읽고, 바울이 살거나 죽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⑦ '시온에 이르는 유일한 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죽음의 문과 시온의 문에 대한 인간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임을 확신한다면(히 9:27),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면, 왜 죽음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나로 하여금 '죽음의 문'과 '시온의 문'을 모두 발견하게 하소서.
 - ② 나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문'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십자가와 시온의 문'에 대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 ③ 내가 마음 문을 닫으면 죽음의 문이 열리고, 내가 마음 문을 열면 시온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제 2 과

다 내게로 오라

• 찬송 / 205장(예수 앞에 나오면) • 본문 / 마 11:25~30

이 곡의 주된 리듬인 점음표입니다.
앞의 점8분음표는 길고 우아하게,
뒤의 16분음표는 짧고 탄력있게 노래합니다.

모듬으로 ♩ = 92

1. 예수 앞 에 나 오 면 모 든 죄 사 하 고
2. 예수 앞 에 나 와 서 은 총 을 발 으 며
3. 예수 앞 에 설 때 에 흰 옷 을 입 으 며

못갖춘 마디로 시작하고 있지요.
약박 강박의 순서로 노래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주 의 품 에 안 기 어 편 히 쉬 리 라
맘 에 기 뵈 념 치 어 감 사 하 리 라
밝 고 빛 난 내 집 에 길 이 살 리 라

진정한 마음을 이 가사에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이 늘임표는 길지 않게

후렴

힘있게 시작합니다.

우 리 주 만 믿 으 면 모 두 구 원 얻 으 며

마지막까지 점음표 리듬을 잘 살려서
가사의 의미가 잘 나타나도록 찬송하세요.

영 생 복 락 면 류 관 확 실 히 받 겠 네

‘예수 앞에 나오면’ (205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참으로 기쁜 복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얻는다고 했으니, 곤고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1절).

2절의 내용은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주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몹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관현들은 그녀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대답하기를 “후회라니요? 내 마음에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그런 일을 천 번을 할 기회가 있으면 천 번 다 할 겁니다. 나는 이전에는 이런 기쁨을 체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그 어느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3절의 내용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흰옷을 입고 그 휘황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과 22장 5절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현세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없다면 현세의 고통은 더더욱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세의 삶을 뜻깊고 보람되게 하시기 위하여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해도 가는 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이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서론)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선택한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집으로 가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은 쇼핑이나 영화관람, 또는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머무르거나 어떠한 사역 지역에서 봉사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많은 다양한 장소에 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가장 놀랍고 놀라운 장소를 반추해 봅시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부추기거나 유혹합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양들의 모습입니다(사 53:6). 그러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갈 2:20).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필요에 대해 배운다.
- ②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떤 은혜의 장소인지를 알아야 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마태복음 11장25절~30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25절 - 숨기시고 나타내심

② 26절 - 아버지의 뜻

③ 27절 - 아는 자가

④ 28절 - 수고

⑤ 29절 - 내게로

⑥ 30절 - 명예

2. 다음 주일 설교('다 내게로 오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참된 용서가 있는 곳'에 대한 단원을 읽고, 죄와 용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차이점을 말해 보십시오.

② '치료가 있는 곳'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루시는 치료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③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 대한 단원을 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대하여 보여준 행동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④ '참된 기도의 처소'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적은 후에, 시 42:1~2절을 참조하세요).

⑤ '놀라운 변화의 장소'에 대한 단원을 읽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들렸던 자의 변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⑥ '변함없는 초청'에 대한 단원을 읽고,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히 3:7~8 참조).

나가면서(결론)

1.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인간 영혼의 참 쉼 곳이 어디 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참된 안식의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떤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까(주님의 용서와 치료, 진리와 기도, 그리고 변화와 초청의 장소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② 주님과 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③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커지게 하소서.
- ④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 ⑤ 나의 가정이 주께서 계시는 은혜의 집이 되게 하소서.

제 3 과

하나가 됨

• 찬송 / 289장(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 본문 / 요 17:18~22

4분의 6박자가 좀 낯설지요? 이것은 한마디가 4분음표 6개로 이루어져 있는 박자입니다. 마치 8분의 6박자를 연주하듯 한마디를 둘로 나누어서 '쿵작딱 쿵작딱'하는 식으로 찬송하세요.

빠르게 ♩ = 132



1. 고 생 과 수 고 가 다 지 난 후 광 명 찬 천 국 에 편 히 쉴 때
2. 주 님 의 한 없 는 은 혜 로써 예 비 한 그 집 에 나 이 르 러
3. 앞 서 간 친 구 들 만 나 볼 때 기 뻔 이 내 맘 에 차 려 니 와

조금씩 차분히 느려지다가
늘임표에 도달하는 느낌으로



주 님 을 모 시 고 나 살 리 니 영 원 히 빛 나 는 영 광 일 세
거 기 서 주 님 을 뵈 옴 는 것 영 원 히 빛 나 는 영 광 일 세
주 께 서 닐 맞 아 주 시 리 니 영 원 히 빛 나 는 영 광 일 세

부 록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심정으로 찬송하세요.
큰 바닷물결이 출렁이듯 흥겨운 리듬으로 찬송하세요.



영 광 일 세 영 광 일 세 내 가 누 름 영 광 일 세

이 마지막 단의 템포는 은혜주심에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변화해 가며 찬송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자연스럽게
찬송합니다



은 혜 로 주 얼굴 뵈 옴 나 니 지 극 한 영 광 내 영 광 일 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289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

(1절)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여 열렬히 사랑하던 주님에게 그저 가까이만 간다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시련 끝나고 아름다운 강가에 닿았을 때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내겐 영원한 영광일세”

(후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기쁘게 만나 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케 될 것이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즉 “아, 내겐 영광이로다. 내게는 영광이로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뵈다는 것은 내게는 영광이로다”

(2절) 하늘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작시자는 무한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늘에 거할 곳을 허락 받아 그곳에 가서 그저 주님의 얼굴을 뵈옵게만 되어도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이다. “주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로 천국이 내게 허락되었을 때 거기서 주의 얼굴뵈는 것만으로도 내겐 영원한 영광일세”

(3절) 오래전에 사랑하던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기쁘고 그가 아는 구세주께서 웃음을 한 번 지어 주신다면 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내가 사랑하던 친구들이 있으리, 기쁨이 강같이 내 주위에 흐르리라. 그러나 주께서 웃음 한 번 짓는 것으로 내겐 영원한 영광이로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느 8:10),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면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시104:29).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성경본문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13절). 예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신적인 기쁨을 가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아버지께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며,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만듭니다(21절).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신적인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요, 겁쟁이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내면을 채우시며, 우리는 신적인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다.
- ②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복음 17장18절~2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8절 - 세상에 보내(send)

② 19절 - 거룩(sanctify)

③ 20절 - 위함(in behalf of)

④ 21절 - 안에(in)

⑤ 22절 - 하나(be one)

2. 다음 주일 설교(‘하나가 됨’)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한 몸을 이루는 지체’에 대한 단원을 읽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지와(마 18:20, 고전 12:12~13 참조), 이러한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 보십시오(갈 6:2 참조).

② ‘하나의 친교’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됨의 증거가 무엇인지와(행 2:42~44, 4:32 참조),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 보십시오(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창 11:3, 민 14:4, 마 21:38, 막 15:31 참조).

③ ‘한 믿음에 이름’에 대한 단원을 읽고, 교회가 영적인 하나됨에 대한 근거와(엡 4:4~5 참조),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보십시오(딤후 4:7,10, 갈 1:6, 3:1, 4:9, 5:1 참조).

④ ‘한 미래가 예비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미래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요 14:3, 17:3, 골 3:1~4, 고후 5:1 참조).

⑤ ‘한 곳에서 한 기쁨을 누리게 됨’에 대한 단원을 읽고, 믿는 자가 이르게 될 ‘한 곳’이 어떤 곳인지와(계 21:1~2, 22:3~5), 이러한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모임에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참된 일치됨이 있습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총현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주소서.
- ② 모든 교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 ③ 각 구역의 회원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 ④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 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기게 하소서.

제 4 과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 찬송 / 494장(나 죄 중에 헤매며) • 본문 / 창 42:1~38

템포지시가 느리게로 되어있지만 너무 느리게 찬송하기보다는 밝은 느낌으로 약간 빠르게 하여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작음이 결코 느리거나 무겁게 시작되는
안됩니다. 가볍게 출발해서 다음의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느리게 ♩ = 55

1. 나 죄 중에 헤매며 다 났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2. 주 나 에게 큰 영광 보 이려고 늘 평 안한 그 길로 이 끄시네
3. 주 나 에게 새 영광 보 여주며 늘 나 에게 평 안함 주 시겠네

나 가 는 길 주 께 서 지 키시며 늘 동 행해 주 시 네
 나 주 님의 손 곧 게 잡 으리니 늘 동 행해 주 시 네
 나 주 님의 손 곧 게 잡 으리니 늘 동 행해 주 시 네

셋째 단은 파도를 타듯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찬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렴

주 언 제 나 나 함 께 늘 동 행해 주 시 네

음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리듬을 느껴보세요
(두둥실 두둥실~)

마지막 단은 가장 힘차게 찬송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사와 리듬을 뚜렷이 살려서 확신에 찬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 날 마 다 내 게 이 김 주 고 늘 동 행해 주 시 네

끝까지 약해지지 말고

‘나 죄 중에 헤매며’(494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1절) 요한복음 6:37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내 구세주 날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 나 아네. 주를 믿는 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나 아네. 내 여정의 길 주가 기쁘게 하시리. 주가 내내 동행하시리라”

(후렴) 주님은 창조자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방패며 빛이시요,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보호자며 피난처이시므로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주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즐겁고 평안하게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을 수행하는 대신은 왕이 먹는 음식 같이 먹으며 왕이 누리는 기쁨이나 영광을 같이 누리듯 세상에서 보지 못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즉, 주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면 주께서 내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푸른 길로 주가 날 인도하시리, 보지 못한 새 영광을 내게 보이시리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의 손 나 붙들리니 주는 내내 나와 동행하시리라”

(3절) 주님과 동행하여 그 엄청난 축복을 체험한 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요, 주께서는 그토록 매달리는 자와 인생길을 내내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축복이 매일 매일 인생의 영긴 것 푸니, 내 눈이 새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게 되리라. 나 주의 손 붙들어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라. 주는 내내 나와 동행하시리라”

들어가면서(서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첫 번째 이집트 방문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 땅의 주(主)”가 자신들에게 엄하게 말했으며, 자신들을 “그 땅의 정탐자들”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30절). 그리고 시므온을 어쩔 수 없이 뒤에 남겨두어야 했었고, 가장 어린 형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각기 양식 자루를 내려서 쏟는 동안, 그들의 돈이 모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돈은 그들이 애굽에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데 써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양식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은 속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36절). 무언가 어긋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각하게 “오 맏소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었던 야곱은 다 자란 열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땅의 주”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은 축복을 대신하는 불행이라고 여겨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축복을 직면하면서 그것은 곧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에 대해 배운다.
- ② 고난 중에도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하심을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창세기 42장 29절~3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5절 - 곡식

② 6절~17절 - 정탐

③ 18절~23절 - 괴로움

④ 24절~28절 - 돈

⑤ 29절~35절 - 두려워하더니

⑥ 36절~38절 - 나를 해롭게

2. 다음 주일 설교('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인간에게 내포된 두 가지 생각, 즉 옳은 생각과 그릇된 생각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②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단원을 읽고, 자신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 ③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에 대한 단원을 읽고,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말해 보십시오.
- ④ '부정적인 길과 신뢰의 길'에 대한 단원을 읽고, 부정적인 길과 긍정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와 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 ⑤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6~39).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이 언약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 ②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나의 생애를 맡아주소서.
- ③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 ④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 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대신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골) 요 15:1-8

로 12:1-5

골 1:1-10

골 1:11-14

골 1:15-17

골 1:18-20

골 1:1-10

골 1:11-14

골 1:15-17

골 1:18-20

골 1:21-23

골 1:24-26

골 1:27-29

골 1:30

골 1:31-33

골 1:34-36

골 1:37-39

골 1:40-42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도동예예예두코방남

도동예예예두코방남		
이름이		성명
학교이		학명
학교이		교명
이름이		성명

본 교내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교내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부독

출판의 만나 · 2002년 8월호 · 발행인 / 김성환 · 편집인 / 노광원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1-6월), 김활근(7-13월), 위건형(14-19월)

· 감역한 20-25월, 김정수(26-30월)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송원교회 출판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